

그린뉴딜에 테슬라까지... 2차전지 관련株 폭발 장세

테슬라 기세에 LG화학 1.73% ↑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 우려도
차세대 기술 대응업체 선별투자를
종목 선별 어렵다면 ETF도 대안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고공행진하며 2차전지 업종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 테슬라와 탈동조화 현상을 보였던 2차전지 종목이 다시금 테슬라 주가와 연동된 흐름을 보이는 것에도 눈에 띈다. 수혜주를 찾기 위한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진 가운데 모멘텀이 분명한 업체에 대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화학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보다 7500원(1.73%) 오른 44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949.92달러(약 113만8600원)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테슬라의 기세가 LG화학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LG화학과 함께 배터리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SDI는 이

〈2차전지 주요 부품주들 이달 등락 추이〉 (단위: 원)

종목명	5월 29일	6월 10일	상승률
포스코케미칼	5만5500	6만4100	15.49
LG화학	39만500	44만	12.67
엘엔에프	2만3600	2만5600	8.47
삼성SDI	35만9000	38만5000	7.24
코스모화학	8530	9110	6.79
피앤이솔루션	1만6150	1만7050	5.57
파워로직스	7690	7980	3.77
일진머티리얼즈	4만6650	4만7900	2.67
에코프로비엠	11만9900	12만800	0.75

/한국거래소

달 들어 7.24% 상승했다.

이 외에도 포스코케미칼(15.49%), 엘엔에프(8.47%), 코스모화학(6.79%), 피앤이솔루션(5.57%), 파워로직스(3.77%), 일진머티리얼즈(2.67%) 등 다른 관련 부품 주들이 이달 오름세를 보였다.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2차전지 종목들의 상승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연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테

슬라가 중국 공장을 가동해 원가 경쟁력이 개선되며 판매가격을 공격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중국 전기차 판매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된 2차전지 기업들 수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차전지 업종 주가가 지난 3월 19일 저점 대비 평균 2배가량 상승하며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진 점은 우려로 꼽힌다.

고문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소재 업체들은 특히 차세대 전지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에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에 부합한다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합리화될 것"이라고 했다.

만일 치열해진 업계 경쟁 속에 종목 선별이 어렵다면 상장지수펀드(ETF)가 대안이 될 수 있다. 2차전지는 크게 소재·장비·배터리셀과 같은 공급처와 완성품 제조업체 같은 수요처로 나뉜다. 이들 중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구성종목을 선정하는 ETF에 투자하면 옥석가리기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차전지테마 ETF'는 최근 3개월간 20% 이상의 수익을 냈다. 같은 기간 '삼성KODEX 2차전지산업증권ETF'의 수익률도 19%대에 달했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장은 "2차전지 세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다양하다"며 "2차 전지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회사들에 투자해 장기적인 투자테마로써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전기차뿐 아니라 수소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뉴욕 나스닥시장에 해성처럼 등장한 니콜라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니콜라는 장중 93.99달러까지 치솟으며 시가총액 300억달러(약 36조원)를 넘어섰다. 상장 4거래일 만에 자동차 기업 포드의 시가총액을 넘기도 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니콜라는 79.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니콜라는 아직 실제 제품이 없는 회사로 기술력만 보유한 스타트업 회사.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나타난 결과다. 테슬라가 공략하지 못한 상용차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니콜라 상장을 도화선으로 폭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선 벌써 '제2의 테슬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안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구체적 성과를 보이는 전기차 관련주들은 추가 급등으로 이미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태"라며 "니콜라의 추가 급등과 정부의 수소경제 지원 등 수소차 관련주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돼 수소차 관련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매월 1000억씩 빠지는 中펀드, 직접투자로 자금 이동

설정액 유출 해외 주식형 펀드
상위 10개 중 9개가 中 펀드

양호한 수익률에도 중국 주식형펀드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해외 주식형펀드까지 힘을 받고 있지만 중국 펀드는 직접 투자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분위기다. 지난 1분기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한 중국경제가 점진적 회복 단계로 들어섬에도 펀드에서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설정액이 많이 빠져나간 해외 주식형펀드 상위 10개 중 9개가 중국 관련 펀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전체 중국 주식형펀드는 4.56%의 수익률을 보였다. 국내 주식형펀드 평균 주간수익률(5.52%)엔 미치지 못했지만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4.64%)는 앞질렀다.

개별 상품별로 살펴보면 KTB중국1등주권투자투자신탁(주식)(운)의 설정액이 1주일간 56억원 감소하며 가장 큰

〈최근 일주일간 중국 펀드 설정액 유출 TOP 5〉 (단위: 억, %)

펀드명	설정액	증감액	수익률		
			1주	1개월	1년
KTB중국1등주권투자투자신탁(주식)(운)	1803.44	-56.7	5.99	8.24	20.03
KB중국본토A주권투자투자신탁(주식)(운용)	3793.33	-36.61	3.96	4.64	14.46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투자투자신탁1(주식)	1133.97	-36.9	6.63	12.36	30.64
한화중국본토증권투자투자신탁(H)(주식)	2094.99	-35.34	3.17	3.44	15.61
신한BNPP중국외국증권투자투자신탁2(H)[주식](종류)	2153.08	-29.57	5.54	8.65	33.12

/에프엔가이드, 신영증권

폭으로 떨어졌다. 중국 펀드들이 계속 뒤를 이었다. KB중국본토A주권투자투자신탁(주식)(운용) 38억원,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투자투자신탁1(주식) 37억원, 한화중국본토증권투자투자신탁(H)주식 35억원, 신한BNPP중국외국증권투자투자신탁2(H)[주식](종류) 30억원 순으로 빠졌다.

설정액이 감소한 상위 5개가 모두 중국 펀드다. 같은 기간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전체 해외 주식형펀드는 634억원 감소했는데, 상위 5개 중국 펀드가 30%가량을 차지한다.

차익실현 차원의 펀드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으로 마이너스(-) 대를 기록했던 펀드가 증시 반등으로 수익률이 회복되자 서둘러 환매에 나섰다. 중간 수익률만 놓고 보면 설정액 감소 상위 5개 펀드의 수익률은 5.05%를 기록했다. 중국 주식형펀드 전체 수익률(4.56%)을 웃도는 수치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증시 반등에 따라 수익률이 개선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중국 펀드 자금이 계속 이탈되는 정

황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2018년 말 7조6200억원 수준이었던 중국 펀드 설정액은 지난 달 말 5조9700억원대까지 줄었다. 올해 들어서만 5600억원이 빠져나갔다. 1년 6개월 동안 1조6500억원 가량이 감소한 한 달 평균 약 1000억원의 자금이 유출됐다.

중국 펀드에서 직접투자로 투자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 해외 펀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중국 펀드에 몰렸던 개인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의미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불안감도 일정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2차 무역분쟁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국펀드 수익률 악화도 불가피하다. 김선영 DB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홍콩 이슈로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상승한 중국시장이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삼성증권 리테일 예탁자산 업계 첫 200조 돌파

삼성증권은 10일 증권업계에서 최초로 WM(리테일)예탁자산 2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WM예탁자산은 개인 고객을 담당하는 리테일부문에 자산 관리를 맡고 있는 주식과 채권, CMA 등 고객의 자산을 말한다. 9일 기준 삼성증권의 WM예탁자산은 203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삼성증권이 2010년 WM예탁자산 100조원을 돌파한 이래로 10년간 매년 10조원 정도의 자산이 꾸준히 유입된 결과다. 특히 올해는 5개월만에 18조원이 대거 유입됐다.

삼성증권이 증권업계에서 최초로 달성한 WM예탁자산 200조원은 지난 1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 평균 예수금인 250조원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증시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중자금이 대거 몰린 것은 0%대 초저금리 시대가 본격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과 채권 등 시중금리+알파(α)를 찾아 나서는 투자자들의 적극적 '머니무브' 움직임이 반영됐다.

실제로 올해 새로 유입된 18조원을 분석해 본 결과 주식투자 비중이 절반을 크게 상회하는 59.5%를 기록했다. 머니무브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동학개미운동'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주식 뿐 아니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고객 비중도 작년 2.8%에서 올해 6.6%까지 높아져 성장 주식을 찾는 움직임이 해외시장까지 확장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주식과 더불어 채권, 신탁, 파생 결합증권 등에도 올해 5개월간 작년 전체의 90% 수준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태화 기자

대림산업, 국내 최초 안티 바이러스 환기시스템 개발

UV LED 광촉매 모듈 탑재
부유바이러스 저감률 99.9%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보건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은 업계 최초로 안티 바이러스 환기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에 자외선 발광다이오드(UV LED) 광

촉매 모듈을 탑재해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UV LED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은 대신 살균 효과는 뛰어나다. 안티 바이러스 환기시스템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부터 부유바이러스 저감률 99.9%, 부유세균 저감률 99.5%, 오존 발생농도 0.009ppm 등 우수한 성능을 확인 받았다.

앞서 대림산업은 지난 2016년 예일대 교수의 검증을 거쳐 업계 최초로 초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된 환기장치에 H13 등급 헤파필터를 설치해 공기청정 기능을 결합시켰다. H13 등급 헤파필터는 먼지의 입자 크기가 0.3 μm 이상인 초미세먼지를 99.97%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실내공기를 순환시키는 '공기청정' 모드로 작동해 24시간 깨끗한 실

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다. 환기시스템을 통해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는 천장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급배기 덕트를 통해 안방, 거실, 주방 등 집안 전체에 고르게 전달된다. 환기시스템을 작동 시 실내 온도 28도 기준으로 10분 내에 사람이 쾌적하게 느끼는 범위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준다.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도 약 35dB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 가정용 에어컨의 저소음 모드(약 42~45dB)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정영우 기자 ywj964@